

2021

내신 기출

국어 창비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

1. 독서는 나의 힘

-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37문제)-----1쪽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30문제)-----16쪽

2. 문학의 갈래

- (1) 비 (51문제) -----37쪽
(2) 삼포 가는 길 (47문제)-----53쪽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문제)-----79쪽
(4) 보지 못한 폭포 (32문제)-----103쪽

3. 국어와 우리 생활

- (1) 음운의 변동 (66문제)-----119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 (69문제)-----139쪽
(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31문제)-----161쪽

4. 소통하는 말과 글

- (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32문제)-----175쪽

◆빠른 전체 정답 -----195쪽

◆해설 -----1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은 난이도가 낮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쓴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창조의 힘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이를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매번 확인서>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확산이 없어도 괜찮아” 필독 명리

◆핵심 정리

갈래	중수필
성격	비판적, 설득적
주제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함. •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가 화제에 집중하도록 함.

◆구성

처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에 대한 비판
중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
끝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① 호기심 유무에 따른 차이

호기심 ○	↔	호기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력을 키움. • 목표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소, 무관심 • 목표를 잃음.

② 자라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는 이유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이 고정됨.	→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줄어들음.
주입식 교육, 삶과 무관한 지식을 강요함.	→	호기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학업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됨.

③ 진정한 앎이 일어나는 과정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함.
▼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군.

④ 우연한 경험으로 직성을 깨달은 예

미국의 천문학자 하이드 해멀은 어릴 때 차멀미가 심했음.
▼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가 별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함.
▼
그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래픽 읽기

다음은 글쓴이와 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우고, 글쓴이의 마지막 말을 짐작해 보자.

*질문자: 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줄어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글쓴이: 공부가 진학이나 취업의 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태로 머리에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그렇다면 진정한 앞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굴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적성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적성을 찾지 못한 청소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이 글의 제목처럼 구체적인 직업이나 전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업이나 전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삶의 목표, 즉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바로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므로 그 목표가 분명하 다면 조금 늦게 가거나 돌아간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읽기 읽기

1.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혹해하는 까닭을 짐작해 보자.

‘가슴 뛰는 일’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을 목표로 삼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2. 글쓴이가 말하는 ‘열정’의 뜻을 찾아보자.

글쓴이가 말하는 ‘열정’은 ‘꿈을 향해 난 비좁은 샛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열정은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으며,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에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나)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주 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드 해럴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질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표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라)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공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뜻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샅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김찬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대연고등학교 (부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사색한 내용을 담아 독자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제시해 독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 ⑤ 요즘 젊은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 내 적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겠어.
- ② 미래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어.
- ③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불안해 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겠군.
- ④ 진정한 앎을 얻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따라 관찰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겠군.
- ⑤ 인생에서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군.

대연고등학교 (부산)

3. (다)의 긴급 구호 활동가와 글쓰기가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동가: 청소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글쓰기: 저도 동의합니다. 성인 중에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만 종사하고 싶은 직업은 대략 정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 ③ 활동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대략 방향만이라도 정할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 무엇인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 ④ 글쓰기: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 ⑤ 활동가: 맞아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방향만 결정된다면 조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혹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4. 윗글 (다)의 밑줄 친 '가슴 뛰는 일을 하라'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 (2)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혹해하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대연고등학교 (부산)

5. 윗글의 글쓰기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나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 ① 대학에 가야 진정한 지성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시를 쓴다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 ③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학업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 ④ 삶과 무관한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관된 시를 택하겠다는 용기를 격려하고 싶네요.
- 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대연고등학교 (부산)

6.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로를 성찰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
- ②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 ③ ㉢: 진로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표지
- ④ ㉣: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 ⑤ ㉤: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나 진로

지동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ㄷ.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글쓰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ㄹ.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ㅁ. 상반되는 학설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저동고등학교 (경기)

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열정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다.
 ㄴ. 꿈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직업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ㄷ.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매진하다 꿈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ㄹ.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빠르게 쌓는 것이다.
 ㅁ.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괜찮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향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나)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

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질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라)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A]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포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해선 상에 있으니까.]"

(마)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뾰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김찬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9. 위 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력을 돕고 있다.
 ④ 서로 대비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0.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직업이나 대학이 인생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
 ② (나): 자라면서 지성이 실종되는 이유
 ③ (다): 진로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
 ④ (라): 목표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
 ⑤ (마): 진정한 꿈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목표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1. 위 글의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생의 흥미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질책
- ②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로하고 격려
- ③ 세상을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 ④ 바른 길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반성 촉구
- 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목표 설정 당부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2. 위 글의 밑줄 친 ㉠-㉤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은?

- ① ㉠-명실상부(名實相符)
- ② ㉡-명약관화(明若觀火)
- ③ ㉢-시종일관(始終一貫)
- ④ ㉣-언중유골(言中有骨)
-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3. 글 (나)에서 제시한 지식과 지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과 지성은 성장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들이다.
- ② 지식이 단순 주입되면서 지성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
- ③ 지식은 삶과 무관하지만 지성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지식과 지성은 모두 탐구 호기심과 흥미를 수반하기 어렵다.
- ⑤ 지식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힘이 되지만 지성은 아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4. 글 (라) [A]에 사용된 글쓰기의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인생은 마라톤이다.
- ② 호수 같은 그대의 마음.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 ④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곤 한다.
- ⑤ 우물 안에는 추억속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5. (다)에서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황해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6. 위 글에서 ㉠-㉤의 문맥적 의미가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수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다.
- ② ㉡수반: 어떤 일에 뒤따라서 생기기.
- ③ ㉢주눅: 실망하여 일어나는 분노나 노여움, 화가 남.
- ④ ㉣부산: 종착지, 종착점, 목표 지점.
- ⑤ ㉤푹대: 목표로 삼아 세우는 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평동고등학교 (경기)

17. 윗글의 필자가 보기의 태섭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봄날.
 나무 벤치 위에 우두커니 앉아
 <job 뉴스>를 본다.
 왜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보며 휘파람 부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호수의 비단잉어에게 도시락을 덜어 주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소풍 온 어린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듣고 놀라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비둘기 떼의 종종걸음을 가만히 따라가 보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나뭇잎 사이로 저며 드는 햇빛에 눈을 상하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나무 벤치에 길게 다리 뻗고 누워 수염을 기르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40억 인류의 job이 될 수는 없을까?
 - 장정일, 『job 뉴스』

태섭은 시를 읽으며 처음에는 그런 것도 직업이면 참 좋겠다 싶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직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그거야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직업이 될 수 없지.”
 김영아 선생님이 웃으며 태섭에게 물었다.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직업이 아닌가?”
 태섭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연하지요. 어른들이 우리더러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도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날마다 힘들고 지겹다고 하면서도 일하는 이유도 돈을 벌어 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 이남석, 『뭘 해도 관찰아』에서

- ① 돈은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꼭 필요해. 하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전공을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야.
- ② 돈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 ③ 돈은 자기 나름의 지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야. 하지만 돈을 위한 열정이 없다고 너무 누숙들어할 필요는 없어.
- ④ 돈이 관심사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전로를 찾아갈 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에 결정짓는 것은 필요해.
- ⑤ 돈은 목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야.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끊임없이 고민해야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①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네 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하려고?” 아들이 다시 답한다. ②“과외 하려고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③그리고 ④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⑤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주 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드 해멜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⑥건네어진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표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향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뜻을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 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작전고등학교 (인천)

18. 뒷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ㄴ. 사례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ㄷ. 전문가의 생각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ㄹ.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ㅁ.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작전고등학교 (인천)

19.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생의 꿈을 실현할 때 평생 몸담을 직업은 중요하다.
- ② 생각이 집이 건축되면서 열정이 수반되고 지성을 일굴 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아도 목표가 분명하면 상관 없다.
- ④ 인생의 목표를 빨리 깨달아 열정을 다하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진정한 삶은 어릴 때 부모님과 여행하면서 우연히 일어 나기도 한다.

작전고등학교 (인천)

2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문장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않는다'로 고친다.
- ② ㉡: 앞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여 '또한'으로 고친다.
- ③ ㉢: 이중피동기 불필요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건네진'으로 고친다.
- ④ ㉡: 필요한 문장성분을 생략했으므로 '꿈으로'를 넣는다.
- ⑤ ㉢: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풍동고등학교 (경기)

2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글쓴이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화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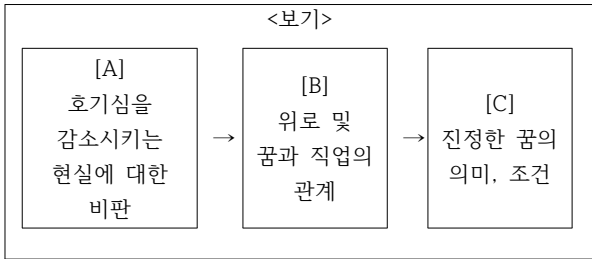
중등고등학교 (경기)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추구할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그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답이다.
- ② ㉡: 자기 나름의 시고방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 ③ ㉢: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정해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으로 목표와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 ⑤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중등고등학교 (경기)

23. <보기>는 위글의 흐름을 세 부분으로 정리한 것이다. 위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호기심과 흥미를 상실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 ② [A]에는 [C]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인생 목표로 직업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생기는 장단점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 ④ [C]에는 진정한 꿈의 의미와 이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 ⑤ [C]에는 [A]와 [B]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주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다 해멸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A]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표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공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향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궤도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구산고등학교 (경남)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 ②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으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거치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쉽다.
- ③ 학생들이 학업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 ④ 열정은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으며,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
- ⑤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구산고등학교 (경남)

25. 윗글 [A]에 드러난 긴급 구호 활동기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표가 없어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목적지로 갈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 ③ 목표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④ 목적지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 ⑤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은 여러 방향이니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구산고등학교 (경남)

26. 윗글과 <보기>를 비교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9세는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빨라도 너무 빠른 시기입니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압력에 떠밀려, 재수가 싫어서,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대학 학과의 딱지는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생이 걸린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수험 준비 말고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본 경험도 없이, 어떻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 인생이니 스스로 결정해야겠지만, 10대나 20대 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 인생이 몇 년 늦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딱 그 시기에 모든 인생이 결정 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 뿐입니다.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中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사람들은 30대가 돼서야 진정한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학교 공부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청소년기에 진로를 정하기에 앞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청소년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가지는 게 더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진로’를 정하는 데 적성을 고려한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산고등학교 (경남)

27. 글쓴이가 생각하는 ‘꿈’의 개념과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조건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나)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외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네 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하려고?” 아들이 다시 답한다. “과외하려고요.”

(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략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라)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주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마)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

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용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사)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꺾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28. 위의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젊은이가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② 목표가 확실하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 ③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학업에 매진하고 훌륭한 직업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 ④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불안해할 것은 아니다.
- 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난관은 목표가 뚜렷할수록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다.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22.⑤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를 통해 알 수 있음.

- ① '현아'는 '나'에게 미안해하는 것이지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아님.
- ② '아버지'는 '나'가 대학가서 출세하라고 한 것일 뿐이지, 시 쓰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아님.
- ③ '나'는 '현아'와 문화적 교류를 한 것은 아님.
- ④ '친구'는 나의 부탁에 대해 당혹해 함.

23.③

▶나는 실연을 겪은 게 아니라 현아의 무반응으로 절망한 것임.

24.①

▶대답: 나 자신도 시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임.

25.③

▶㉔: 현아에게 줄 시집이 완성된 기쁨을 눈 내리는 상황에 이입한 것으로 내적 갈등상태는 아님.

27.①

▶상징적 소재(시집)를 통해 주제(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적 성장)를 형상화하고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1.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2.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28.④

▶㉔: '나'의 시집이 그때 현아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더라도 '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

29.⑤

▶현아가 뛰어나오지는 않고 소리만 들리는 것으로 마무리.

2-(1) 비

1. ③

- ① 시적 화자는 숨어 있음. ② 대조적 표현은 없음.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은 없음.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심상과 감각 (★★★)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는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2. ④

▶<보기>의 시도 대상에 대한 감정이 절제되어 있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3. ②

▶㉔의 원관념은 '빗방울'임

▶응, 헛갈리지 마!◀

원관념 vs 보조관념 (★)

비유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여기서 전자를 원관념, 후자를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관념은 비유되는 대상, 즉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뜻하고 보조 관념은 비유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관념을 말한다. 가령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했을 때, 원관념은 '꽃'이 되고 보조관념은 '내 누님'이 된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4. ③
 ① 먹구름 장면은 어두운 느낌에 해당 ② 계절적 배경은 보임 ④ 손가락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빗물을 의인화한 표현임 ⑤ 앞에 비가 떨어지는 장면을 클로즈업 해야 함
5. ①
 ▶1연만 상태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움직임에 나타냄.
6. ④
 ① 인과적 흐름은 아님 ② 복합적인 묘사는 아님 ③ 감정은 절제됨 ⑤ 시적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음
8. ④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건 아님.
9. ②
 ▶1~2연은 비 내리기 직전 임.
10. ①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함.
11. ②
 ▶①처럼 '찬찬히 깨어진 금들'은 시각적 심상임.
 ① 시각적 청각화 ③ 후각적 심상
 ④ 미각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함
 ⑤ 청각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13. ④
 ▶시적 대상을 '산새'로 보는 경우, 화자는 비를 피하는 '산새'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14. ①
 ▶그들 때문에 어두울 수는 있으나 분위기가 침울(걱정이나 근심에 잠겨서 마음이 우울)한 것은 아님.
15. ①
 ▶간결한 시행을 통해 비가 내리는 정갈한 분위기와 산수화 같은 여백의미를 표현함.
16. ④
 ▶㉠은 화자의 손가락이 아니라, 물줄기를 손가락에 빗댄 것임.
17. ②
 ▶위 시는 청각적(맑고), 시각적(불은) 심상 활용. <보기>는 시각적(꽃가루~), 촉각적(부드러운), 후각적(향기) 심상 활용.
 ① 위 시와 <보기> 자연의 모습을 생기 있게 묘사한 것이지 화자가 자연을 동경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위 시도 비를 산새에 혹은 물살을 손가락에 비유한 것이 있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2. 반어 vs 역설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남은 갔지만 남을 보내지 않았다)

3. 색채어 (★)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18. ④

-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의인법
- 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의인법) 휘달릴 때에도
- ② 벽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의인법)
- ③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의인법)
- ⑤ 언제나 나의 애기를 들어주는(의인법)
깊고 푸른 바다야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이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19. ①

- ▶소멸의 이미지나 쓸쓸한 분위기는 없음.

20. ⑤

- ▶㉢: 공감각적 심상이 아닌, 청각적(밟고) 심상임.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등의 사용

22.⑤

- ▶빗줄기가 굵어진 것은 맞지만 잎을 소란히 밟고 갈 정도로 묘사했으니 세찬 비가 쉬지 않고 내리는 건 아님.

23.⑤

- ▶비 내리는 정경을 감정을 절제하여 나타낸 것이지만 자연과의 합을 지향하는 건 아님.

24.③

- ① 동일한 장소이며 공간 이동은 없음.
- ④ 5,6연은 빗물이 모여 가느다란 물줄기로 흐르는 모습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묘사하였다.
- ⑤ 빗방울을 ‘붉은 잎’에 빗댄 것이 아니라, 빗방울이 ‘붉은 잎’을 밟고 가는 것.

▶어머, 이걸 외워야 해!◀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놀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25.②

- ▶비오는 정경을 감정을 절제해서 나타내는 것이지만 시대적 절망을 나타내는 건 아님.

26.②

- ㄱ: 감정은 절제됨, ㄷ: 손가락은 물줄기를 의인화한 것이지만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아님.

27.④

- ▶빗줄기가 굵어진 것이지만 비가 그친 건 아님.

29.④

- ▶쓸쓸함은 없음. 화자의 감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시의 심상과 감각 (★★★)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30.⑤

- ▶비를 산새로 나타낸 것이지만 산새들이 나뭇잎을 헤집는 건 아님.

31.⑤

-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는 [A]처럼 의인법이 사용됨.
① 역설법 (외로운 황홀한 심사)

③ 역설법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32.⑤

▶비가 그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빗줄기가 굽어짐.

33.①

▶중의적 표현도 아니고 정서가 표출된 것도 아님.

▶응, 헛갈리지 마!◀

모호 vs 중의 vs 모순 (★★)

*모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34.④

▶심상의 반복이 아닌, 시어나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 감 나타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수사법의 종류

- 1)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 2)강조법: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열거법
- 3)변화법: 도치법, 설의법, 인용법, 대구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35.④

▶㉔: 그치는 듯하다 다시 내리는 것임.

36.④

▶④만 내재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외재적 관점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이상 ↔ 현실

37.④

▶근경과 원경의 대조는 없음.

40.⑤

▶유사한 내용의 문장을 한 연으로 반복하는 건 없음.

41.③

- ① '그늘이 차고': 비 오기 전 먹구름이 끼고 어두워짐.
- ② '산새 걸음걸이': 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확함있다.
- ④ '새삼 듣는 빗날':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모습.
- ⑤ '소란히 밟고 간다': 비가 멎은 게 아니라, 빗방울이 굽어진 모습을 나타냄.

42.①

▶㉔의 시각에서 본다면, 비를 피해 앞 다투어 도망하는 산새의 모습을 나타냄.

46.①

▶위 시와 <청노루>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음.

◆주제 저장소◆

- ① <청노루>: 봄의 정경과 정취
- ② <매미 울음>: 사랑이 끝난 후의 고요함
- ③ <여승>: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④ <진달래꽃>: 승화된 이별의 정한
- ⑤ <우리가 눈발이라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또는 위로와 희망을주는 존재가 되자

47.⑤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음.

48.②

▶윗글에선 '수척한 흰 물살', <보기>에선 '속삭이는 햇발, 웃음 짓는 샘물'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주제: 봄 하늘에 대한 동경과 예찬

*해제: 이 시는 매우 단순한 내용과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다. 4행으로 구성된 두 개의 연은, 모두 1행과 2행이 '-같이'로 되어 있고, 마지막 행은 '-고 싶다'로 되어 있다. 즉,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직유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소망이 뜻하는 바는 평화와 생명력으로 가득찬 봄 하늘만큼 순수하고 고운 서정을 가지고 굽디고운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화자가 현재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즉, 하늘과 대립되는 땅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49.③

▶빗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임.

50.④

▶후각적 심상은 없음. 시각적, 청각적 심상이 사용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1.④

▶빗물이 굽어지거나 여울을 짓는 정도이지 범람하여 흐르는 위세까지는 오버임.

2-(2) 삼포 가는 길

1.⑤

▶정씨는 고향 상실이라는 외적 갈등을 겪고 있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③

▶①함박눈과 '눈길'(고은)의 '눈'은 포용의 의미가 있음.

①, ④, ⑤ 고통, 시련을 상징

② 장애물을 상징

◆주제 저장소◆

- ① <광야>: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
- ② <산촌에~>: 자연에서의 은거 생활
- ③ <눈길>: 눈길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무념무상의 경지
- ④ <매화사>: 매화의 예찬
- ⑤ <눈 마자~>: 굳은 절개 예찬

3. ③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유대감을 느낌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상실감을 느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4. ④

▶영달이의 상실감이 아닌, 정 씨의 상실감임.

5.①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

- ②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 ③ 견위치명(見危致命):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몸을 나라에 바침.
-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
- ⑤ 수주대토(守株待兔):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

6.②

▶백화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옥자에 대한 안타까움임.

7.②

① 냉소적 어투가 아닌, 따뜻한 어투임. ③ 작품 밖 작가가 인물의 심리를 서술함. ④ 운율이 느껴지는 시적인 문체가 아닌, 산문체임 ⑤ 인물 간의 갈등은 없음.

▶응, 헛갈리지 마!◀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남을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8.④

▶본명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유대감을 표현함.

9.⑤

① 눈은 갈등이 아닌,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함. ② 인물이 사건을 유발한 것이 아님. ③ 세 인물이 동시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영당과 정 씨가 먼저 만나고 이후 백화를 만남.

11.①

② 작가 자신의 경험이 아닌, 허구적 내용임. ③ 실제 현실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 창작됨. ④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주를 이룸. ⑤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소설의 시점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상상력 제한↑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12.②

▶영달은 고향을 상실한 정씨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잡자고 권유함.

13.⑤

▶기차가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에서 목적지 없이 계속 떠돌아야하는 인물들의 삶을 암시함.

14.③

▶극적 효과는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나타남.

▶넣어둬, 패턴 공략◀

사건 전개 양상

ㄱ. 대화 無: 사건 전개 압축적→빠름

ㄴ. 대화 有: 사건 전개 구체적→느림

15.④

▶1970년대 산업화라는 실제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었다는

‘반영론’에 해당.

① 독자와 관련된 효용론에 해당. ②, ③ 작품 자체와 관련된 절대론에 해당. ⑤ 작가와 관련된 표현론에 해당.

16.③

▶공사판 일을 잡으려는 이는 정 씨가 아니라 영달이임.

정지용, <고향>

*주제: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

*해제: 이 시는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상실감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고향의 황폐화에 따른 상실감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정서와 인식의 변화로 인한 상실감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17.⑤

▶ㄹ. 등장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임.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18.④

▶㉞: 반어법이 아닌, 진짜 능력이 없다는 표현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19.①

▶㉠만이 과거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산업화 도시화가 된 현재의 모습임.

20.③

① 성격은 직접 서술이나 대화를 통해 드러남. ②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음. ④ 애상적 분위기는 없음. ⑤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건 대화와 사건 서술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ㄴ. 간접 제시: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21.③

ㄱ: 삼포는 호남선 쪽임. ㄴ: 정씨만의 고향임.

ㄹ: 고기잡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어촌임.

23.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음.

25.④

▶영달은 정씨의 슬픈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일하기를 권함.

26.①

▶㉠: 한탄이 아닌, 옥자에 대한 안타까움임.

27.⑤

▶비속어를 통해 저항감이 아닌, 현실감을 높일 뿐임.

▶넣어둬, 패턴 공략◀

‘구체적’, ‘사실적’, ‘현실감’, ‘생생함’, ‘의성어 혹은 의태어’ 사용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28.⑤

① <보기>의 ‘정주’도 변함. ② ‘정씨’는 ‘노인’에게 경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님. ③ 동향의 지인을 매개로 연결된 것은 <보기>에 해당. ④ <보기>의 ‘의원’은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임.

백석, <고향>

*주제: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

*해제: 이 시는 타향에서 병을 앓다가 만난 의원이 화자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이와 친구 사이임을 알게 되어, 그를 통해 따스한 고향의 정을 느끼고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에서 환기하는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향이 불러일으키는 따스한 정이다. 이 시는 이러한 정서를 화자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 및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는 고향을 제재로 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민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고향을 통해 드러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시 또한 백석의 유년 시절 고향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이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유대가 있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라는 점은 반대로 화자의 현재 상황이 그만큼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고, 고유의 민족의 정서가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29.③

▶㉞: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백화와 같이 가는 것을 포기하려는 영달

30.⑤

① 말투가 거칠고 행동이 포악하지만 남자들을 증오하는 건 아님.

② 술집에서 일한 건 잘못 소개 받은 것임.

③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즐겁고 평화롭게 생각함

31.⑤

▶영달이 마지막에 정씨 고향인 삼포에 따라가기로 한 것은 뜨내기 삶이 계속됨을 의미함.

33.③